●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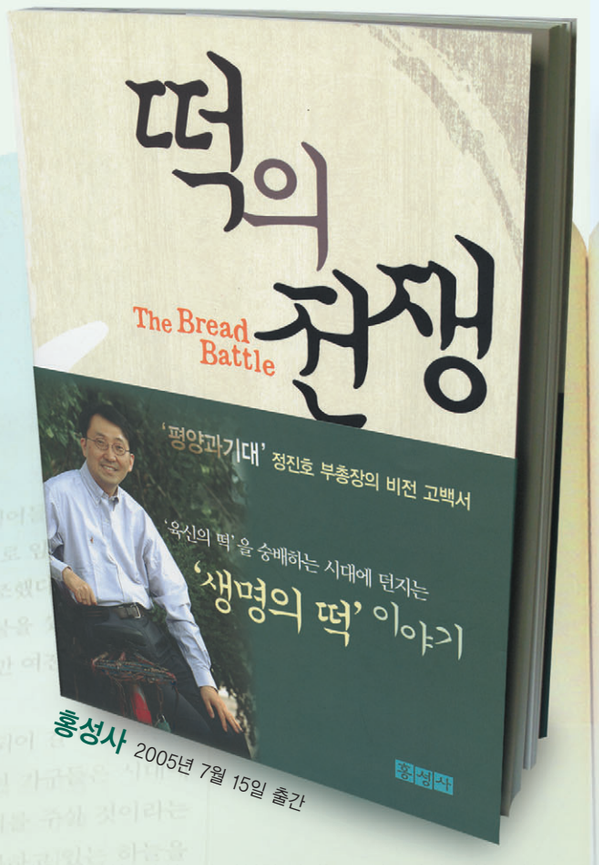
홍성사 주요 저자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되셨습니다.

홍성사 Book News 책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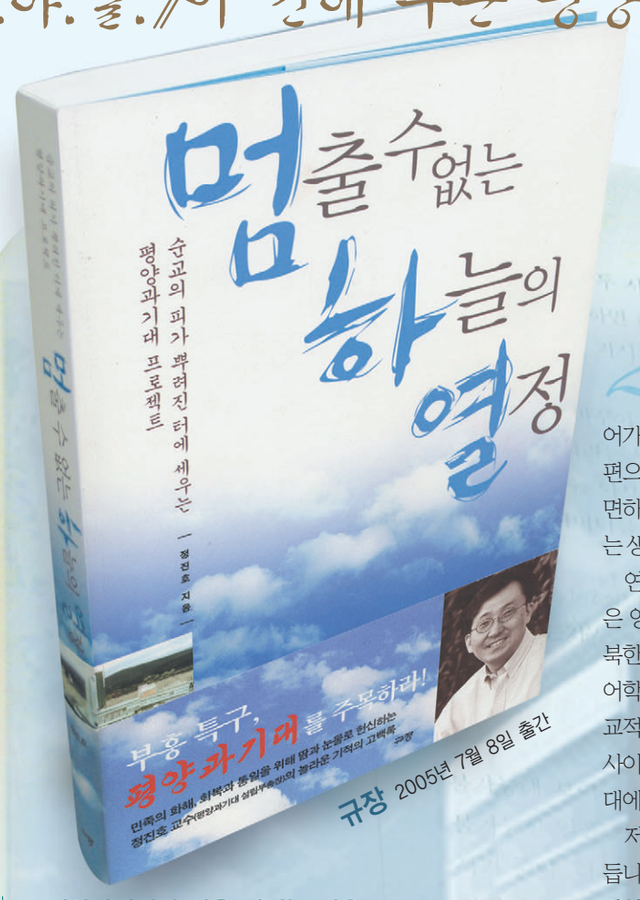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지無價紙입니다. 2005년 7-8월 · 9호

평양아 울밀대야 네게서 부흥의 소리가 들려오누나!

홍성사의 《떡의 전쟁》, 규장의 《멈.하.열.》이 전해 주는 평양발 소식



홍성사 2005년 7월 15일 출간



규장 2005년 7월 8일 출간

1900 초반

19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대부흥 운동을 회고하며 21세기 벽두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열병을 앓고 있다. 어떻게든 한반도가 다시 한 번 부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흥의 진원지로 알려진 영국의 웨일즈. 1904년 이반 로버츠를 통해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열기는 1905년 인도의 카시아, 1906년 미국의 LA 아주사 지역을 거쳐, 남아프리카와 한반도의 평양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현교회는 한반도 복음화의 도화선을 당기게 되고, 마침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40년 앞서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가 이미 평양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린 사실을 알고 있다. 웨일즈와 평양, 이 신비로운 영적 연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부흥이라는 주제에 나타나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에 깊이 빠지게 된 김우현 감독은 토마스의 감추어진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 그를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까지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다. 토마스를 파송했던 작은 교회 하노바. 그 교회 옆에는 교회의 목사였던 토마스의 아버지와 성도들의 무덤이 있었으나 토마스의 묘는 없었다.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묻혔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 놀랍게도 한쪽 벽에 태극 마크가 선명한 커다란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고, 그 안에는 토마스의 순교의 삶을 목각으로 새겨 놓은 게 보였다.

140년 전, 복음을 들고 조선을 향했던 한 젊은이의 열정과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먼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이곳 한반도를 향해 여전히 그 진한 핏빛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럼으로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왔노라."

오문환 목사가 쓴 《도마스 목사전》에 기록된 토마스의 목을 친 병사 박춘권의 말이다. 토마스는 최후의 순간까지 성경을 뿌리며 전도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저자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 당시 토마스로부터 성경을 전해 받은 박춘권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가지고,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한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 그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성경 세 권을 전해 받았던 당시 열두 살 먹은 최치량이 겁이 나서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 금서를 전해 주었는데, 박영식이 그 책으로 자기 집을 도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장을 보아도 말씀, 벽을 보아도 말씀, 기분이 나빠서 바닥을 내려보아도 말씀, 어디를 보아도 말씀이 보이니 말씀과의 만남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장대재교회로 이름이 바뀐 후 최종적으로 장대현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현교회에서 1907년 1월 14일과 15일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평양 대부흥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토마스와 함께 떠나는 순례여행》의 저자 고무송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는 성육신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명을 개종했다고 하는 그런 숫자놀음이 아니라, 나의 삶과 생명까지를 구원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칭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토마스의 죽음이 갖는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떡의 전쟁》 p. 279-281에서

평양과기대에 떡을 던지는 이유

처음에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에 15명가량의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일했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는 각국에 있는 후원조직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극분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적극분자'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통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프로젝트의 팀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그곳에서는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조직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적극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적극분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적극분자들이 바로 '기업 무를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마다 기업 무를 자로서의 크리스천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문제 등이 불거진 시점에 "왜 우리가 북한의 형제를 도와야 하는가?" 혹은 "우리가 왜 평양과기대 일에 나서서 흐르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물질을 던져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저는 평양과기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던져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기업을 무를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연변과기대에 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분들이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북한에 들어가 일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큰 감동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변과기대의 생물화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젊은 교수 필립은 영국 런던대학의 임페리얼 칼리지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서 연변에 들어오기 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비록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비교적 한국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는 한국 여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된다면 평양과기대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필립을 볼 때마다 '제2의 토마스 선교사'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우연히도 토마스 선교사의 고향 웨일즈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나라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북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가 동포를 돕지 못하고 기업 무를 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북한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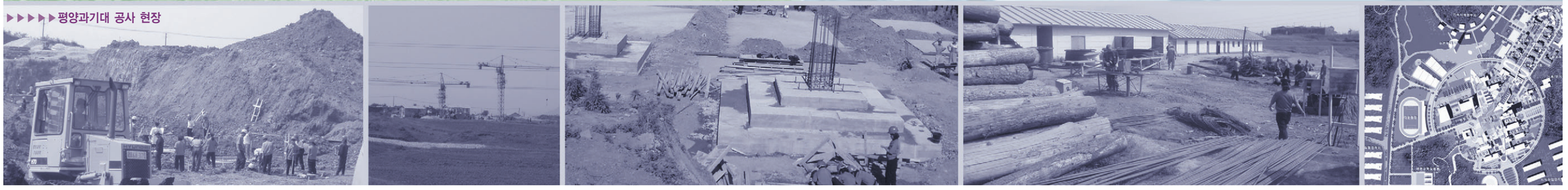
평양과기대를 세우는 일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자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곧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북한의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평양과기대를 세우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형제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당연히 형제를 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평양과기대를 설립하는 일은 형제인 우리가 형제를 돕는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늘의 열정》 p. 40-42에서

2005 현재



▶▶▶▶▶평양과기대 공사 현장

지면안내 紙面案內

1 신간이슈 평양을 향한 두 출판사의 연합전선

2 구간읽기 레프트 비하인드 7

3 신간
1_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
2_떡의 전쟁
3_네 가지 사랑
4_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⑥

근간
1_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2_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⑦
3_양화진 순교자 열전(가제)
4_톨킨과 루이스

4 기획광고 톨킨과 루이스, 네 가지 사랑, C. S. 루이스 베스트 컬렉션

온고지신 溫故知新

정연희의 소설은 여전히 단단하다

1989년 여섯째 날 오후
믿음의 글들 81_A5신_280면_4,800원

1991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믿음의 글들 93_A5신_264면_5,000원

1992년 양화진
믿음의 글들 101_A5신_472면_11,800원

1996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의 글들 149_A5신_404면_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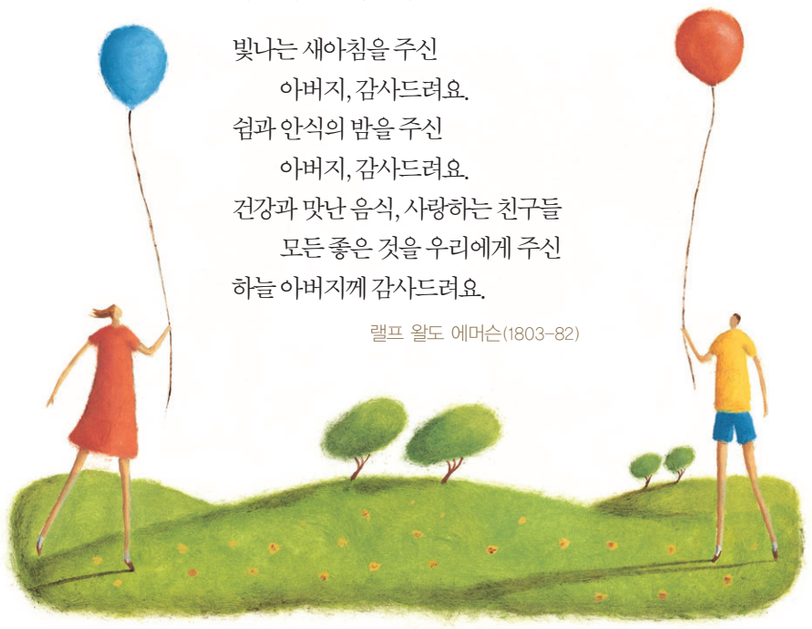
시 외기 ...가족들과 함께 행을 번갈아 낭독해 보세요.

발 밑에 피어난 어여쁜 꽃들
　　아버지, 감사드려요.
상큼하고 풋풋하게 돋아난 풀들
　　아버지, 감사드려요.
새들의 노랫소리, 벌들의 윙윙거림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파란 시냇물과 새파랗게 물든 하늘
　　아버지, 감사드려요.
높은 나뭇가지에 드리운 상쾌한 그늘
　　아버지, 감사드려요.
향기로운 공기, 시원한 솔솔바람
　　아름답게 꽃피운 나무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빛나는 새아침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려요.
쉼과 안식의 밤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려요.
건강과 맛난 음식,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랠프 왈도 에머슨(180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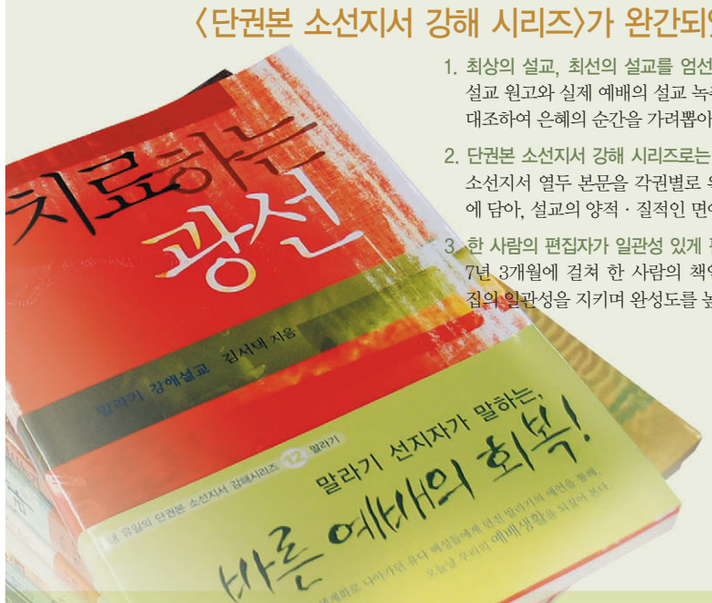


수잔 커스베트 엮음, 엘리슨 제이 그림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기도》에서

‘설교의 황무지’
소선지서의 세계가 열린다!
– 국내 유일의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전12권) 완간!

‘가장 설교되지 않는 텍스트’인 소선지서 연구의 안내자,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의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가 완간되었습니다.

1. 최상의 설교, 최선의 설교를 엄선하여 편집
설교 원고와 실제 예배의 설교 녹취본을 꼼꼼히 대조하여 은혜의 순간을 가려뽑아 편집.
2.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로는 유일무이
소선지서 열두 본문을 각권별로 완성된 단행본에 담아, 설교의 양적 · 질적인 면에서 풍성.
3. 한 사람의 편집자가 일관성 있게 편집을 마무리
7년 3개월에 걸쳐 한 사람의 책임편집자가 편집의 일관성을 지키며 완성도를 높인 시리즈.



국내 유일의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 1-12

호세아_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1, 2
A5신_1권 272면·2권 292면_
1권 8,800원 2권 8,000원
요엘_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A5신_160면_6,000원
아모스_헐고 다시 세워라
A5신_360면_10,500원
오바댜_가시 같은 이웃
A5신_112면_5,500원
요나_박 넝쿨의 사랑
A5신_176면_6,500원
미가_전쟁 없는 나라
A5신_400면_13,000원
나훔_네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A5신_176면_6,800원
하박국_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A5신_176면_7,000원
스바냐_심판과 은혜
A5신_152면_6,800원
학개_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A5신_112면_6,500원
스가랴_오직 나의 신으로
A5신_440면_14,500원
말라기_치료하는 광선
A5신_176면_7,000원

▶▶▶김서택 목사의 소선지서 강해
전권 500부 한정특별판 이벤트
▶행사기간 : 2005년 9월 1일부터
▶할인내용 : 전12종 106,900원을 ➡ 75,000원에!
▶행사서점 : 갓피플, 영풍문고종로점, 교보문고, 성광서림, (주)기독교문사, 장신대 구내서점, 동서울두란노서적, 도서출판솔로몬, 부천백합기독교백화점, 새부산기독센타, 부산성서한국의집, 전주교회백화점, 광주기독교백화점, 대구기독교마트서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소설 읽기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7

팀 라헤이 · 제리 젠킨스 지음_홍종락 옮김

비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 지긋지긋했다. 자신이 설혹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새 발에 피였다. 그들은 술 담배에 허구한 날 싸웠으니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떠들어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린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비키는 자리를 떠나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혼자서만 일어설 순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비키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종교 얘기라면 이제껏 별로 들은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비키는 짜증스런 마음에 부모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비키는 매우 놀랐다.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

비키 아버지는 한술 더 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버지는 신경질적이 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게 보통이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연사를 끌어내리려 하거나 다른 소란을 일으켰다 해도 비키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 서서, 연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꼼짝도 않고 있었다. “아빠?” 비키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비키를 조용히 시켰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무엇 때문에 댄스파티에 참석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졌나?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건 그들이 절대로 따르지 않을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다. 비키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나 그 친구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지시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을 감았다. 설교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비키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의 상황이 대단히 불편했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아버지의 모습에 비키는 또 한 번 놀랐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몸을 굽혀 아버지를 안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비키는 당황스러웠다. 설교가 끝나고 음악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비키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도대체 무슨 얘기였지?” 비키가 친구들에게 물었다.

“글쎄.” 한 남자애가 종이 봉지에서 맥주 캔을 꺼내 돌리면서 말했다. “네 아빠한테 물어봐. 정말 푹 빠져든 것 같던데. 너도 봤잖아.”

“무슨 뜻이야?” 비키가 물었다.

“너네 엄마가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잖아. 네 여동생도 뒤따라갔어. 다들 종교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던데.”

“그게 무슨 뜻이든, 담배나 한 대 줘.” 비키는 주제를 바꿀 요량으로 말했다.

사실 비키는 담배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 담배를 들고 있으면 좀더 성숙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럴 뿐이었다. 비키가 담배를 피우는 건 사실이지만, 담뱃갑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었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한 개비씩 얻어 피우는 게 전부였다.

밤늦도록 비키는 친구들과 함께 지칠 때까지 맥주와 담배로 속을 채웠다. 그리고 술 냄새를 숨기려고 껌을 한입 가득 씹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과 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보니 아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중 몇몇은 술에 취해 여느 때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없었고 경찰을 부를 만한 일도 없었다.

비키는 귀가시간을 30분 정도 넘겼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말 댄스파티에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다. 비키는 요란한 호통소리와 늘 듣던 대로 다시는 밖에 못 나갈 줄 알라는 으름장(정말 외출금지를 당한 적은 거의 없었다)과 어디서 온갖 몹쓸 짓을 저지르다 온 것이냐는 비난이 있겠구나 각오했다. 비키와 친구들이 한 짓이라곤 우편함 몇 곳에 폭죽을 넣은 뒤 도망친 일과 쓰레기통 몇 개를 쓰러뜨린 게 전부였다. 비키 아버지는 항상 비키가 그보다 더한 몹쓸 짓을 하고 다닌다고 나무랐지만, 벌을 준다고 했다가도 대개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은 이상했다. 여동생 지니는 잠자리에 든 후였지만,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 말짱한 정신으로 깨어 있었다. 어머니는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낡은 성경을 작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비키 아버지는 흥분한 채 환한 얼굴로 웃으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난 술도 담배도 끊고 싶어, 여보.” 그때 비키가 들어왔다. “내 행실을 완전히 바로잡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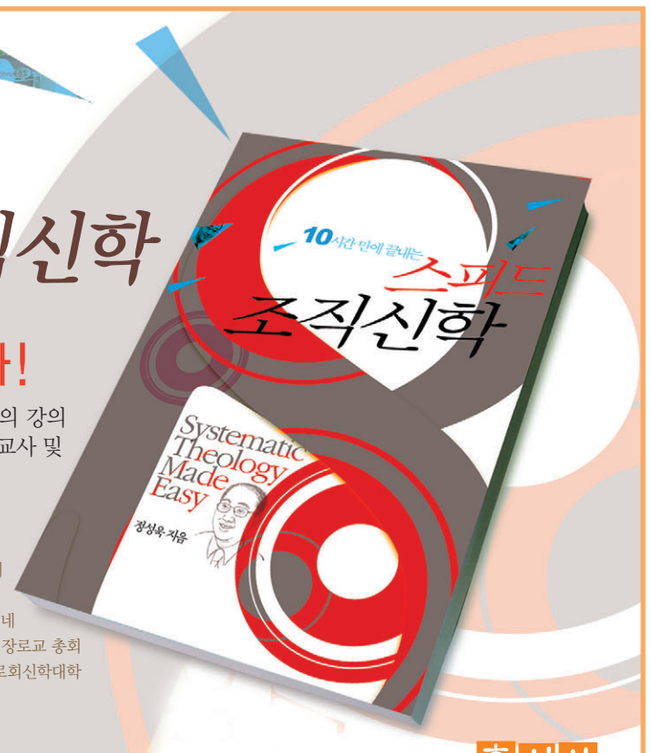
“있잖아요, 여보.” 비키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다. “당신이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 25-28페이지

0p 10p 20p 25p 28p 30p 40p 60p 80p 100p 300p 500p

알리스터 맥그래스 · 강영안 · 김진홍 추천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 리더를 위한 조직신학 특강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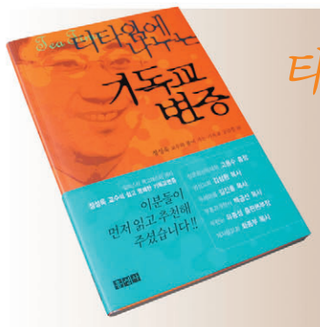
어렵고 방대한 조직신학, 나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주제를 간추려 10개의 강의로 압축하여 설명한다. 각 강의마다 토론 문제가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 및 청년 리더 · 제직 훈련 교재로 용이하다.

정성욱 지음_믿음의 글들 227_A5신변형_248면

정성욱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의 주목받는 소장 신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석사학위(M. Div.)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교수 지도하에 조직신학 박사학위(D. Phil.)를 취득했다. 미국 테네시 주 킹 칼리지 신학 교수를 거쳐 현재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장로교 총회 산하 ‘삼위일체교리위원회’ 위원, 미국 코스타(KOSTA · 해외유학생수양회) 강사, 미주 장로회신학대학 특별강사를 역임했다.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홍성사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변증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제자 정성욱 교수가 쓴 쉽고 명쾌한 기독교변증!

“이 책을 신학생들과 목회자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읽고 난 뒤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책일 것입니다. 정성욱 교수의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갓피플 독자서평

정성욱 지음_믿음의 글들 213_A5신변형_224면_본문 2색_8,800원

▶추천! 고용수(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삼환(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진홍(두레마을 대표) 백금산(예수가족교회 담임목사) 유종성(두란노출판본부장) 화종부(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신간 1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

열에 아홉은 읽고도 그냥 지나치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찾아내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상상으로 쉽고도 깊이 있게 해석한, 흥미진진 성경탐구서 2탄!

"지금 한국 땅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칫 힘을 잃기 쉬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어떤 신비한 집회나 기발한 행사 혹은 능력 있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우리들이 세속의 이야기보다 성경 이야기를 더 즐거워하고, 세속에 대한 관심보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기에 하늘로서 복이 내려올 길을 닦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습니다."
–머리말에서

"초신자들은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읽기에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쾌한 안내자가 되어 준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원한 생수가 되어 준다."
–이호훈(두레교회 교육목사)

오정준 지음_믿음의 글들 224_A5_272면_9,000원

신간 2

떡의 전쟁

평양과기대 설립 부총장 **정진호** 교수의 비전 고백서

치열한 '떡의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육신의 떡을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 없었던, 정진호 교수의 중국행. 이제 그는 평양의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을 품는다. 이 책에는 '육신의 떡'(돈·명예·권력)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떡'(예수 그리스도)을 나누기 위해 평양과기대 설립에 투신한 정진호 연변과기대 교수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담겨 있다.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시작하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 그러나 그것을 철저히 경제적 떡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맞이하는 북측의 당국자들. 그것은 실로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이 맞부딪치는 첨예한 전쟁이 아닐 수 없다."
–프롤로그에서

정진호 지음_믿음의 글들 225_A5신변형_304면_9,000원

신간 3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Ⅷ

C. S. 루이스의 실천적 사랑 변증서!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 당신은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 본문 중에서

"그는 이 책을 결코 좀더 나은 정도로 쓰지 않았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밝게 비추어 주며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들로 번득이고 있다." –*Church Times*

"이 책은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고, 인간이 행하는 사랑의 영광과 실패를 보여 주는 거울로, 현대의 고전이라 할 만하다." –뉴욕타임스 북리뷰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개척되지 못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 시발점이 되어 준 작품" –루이스 마르코스
(휴스턴 밥티스트 유니버시티 · C. S. 루이스 연구가)

C. S. 루이스 지음_이종태 옮김_믿음의 글들 226_A5신변형_240면_양장_9,800원

신간 4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⑥ 성性의 격格

이재철 목사의 전도소책자 6권 출간!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실은 가정과 직장, 사회 내에 관계의 파괴와 상처를 남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유니섹스' 시대에, 남녀의 참된 조화와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

★결혼생활·남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익한 선물!

이재철 지음_소책자+Tape(88면+60분)_3,000원

근간 1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 주는 조직신학. 그러나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제자이자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저자가 이러한 편견에 과감히 맞섰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 – 하나님, 사람과 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구원, 교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 역사와 종말, 이단과 다른 종교들 – 를 복음주의 시각에서 쉽고도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 주일학교 교사와 제직 훈련 교재로 안성맞춤!

정성욱 지음_믿음의 글들 227_A5신변형_248면_9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 **이현주**(lhj@hsbooks.com)

근간 2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 ⑦**
공즉시색 空卽是色

버림으로 얻는 것이 있다!
– 이재철 목사의 전도 소책자 제7권

돈과 권력에 대한 자기집착의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무서운 흉기가 되어 간다. 한낱 안개요 그림자인 인생 가운데서 '헛것'이 아닌 참된 실체,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는 길은 정녕 무엇인가?

이재철 지음_소책자+Tape(80면+60분)_3,000원

책임편집 ● **옥명호**(editor@hsbooks.com)

근간 3

양화진 순교자 열전(가제)

양화진 외인 묘지에 묻힌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 이야기!

마포구 합정동 145-8번지, 한강 옆자락에 자리 잡은 '외국인묘지 공원'에 가면, 한국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근대 교육의 개척자 아펜젤러, 민족 운동의 동역자 벙커, 천민 해방운동의 지도자 무어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외에도,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사연 많은 무덤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격동의 시절 구한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민족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낸 선교사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이다. 죽어서까지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양화진에 묻히기를 바랐던 그네들의 한국 사랑,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현장 이야기이다.
※믿음의 글들 36번 《이 땅에 묻히리라》 개정판

전택부 지음_10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 **한수경**(refuge@hsbooks.com)

근간 4

톨킨과 루이스

우정의 선물,
"누구에게나 과분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톨킨과 루이스는 가운데 땅(중간계)과 나니아 나라를 창조한 문학계의 거장으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독자와 팬들 중에서 이 두 천재의 우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루이스의 끈질긴 격려가 없었다면,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루이스의 모든 픽션에는 톨킨에게서 받은 영향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그들은 기질이나 신앙적 강조점,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스타일 면에서 많이 달랐지만, 그들을 묶어 준 공통점은 그보다 훨씬 컸다. 그들이 공유했던 비전은 전 세계 수백만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1963년 루이스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 그들의 복잡한 우정을 펼쳐 보인다.

저자 **콜린 듀리에스**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재능 있는 두 지성인이 만나 공통 관심사와 공통 신념을 매개로 굳건한 우정을 쌓게 되는 멋진 과정을 보여 준다. –브라이언 시블리(《반지의 제왕 공식 영화가이드》와 《C. S. 루이스의 지혜》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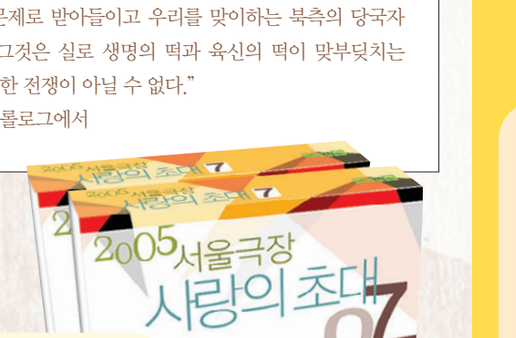
콜린 듀리에스 지음_홍종락 옮김_A5신변형_양장_10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 **한미영**(myhan@hsboo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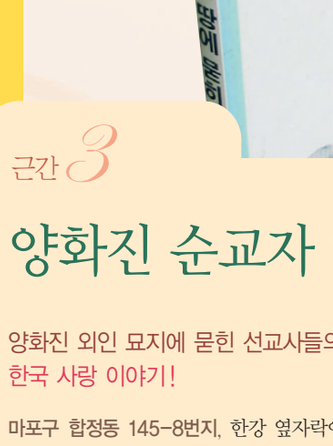
책방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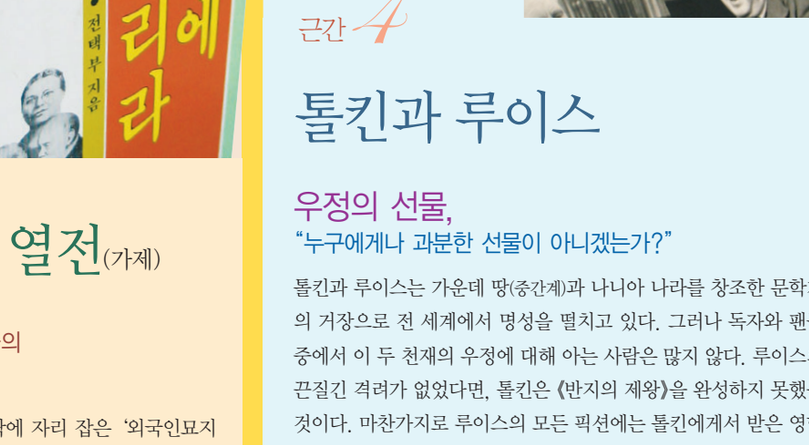
영풍문고 개점 13주년 기념

"2005년 상반기 BEST 및 화제의 신간 경품 이벤트" 행사 모습



▶서점명 : 종로 영풍문고





톨킨과 루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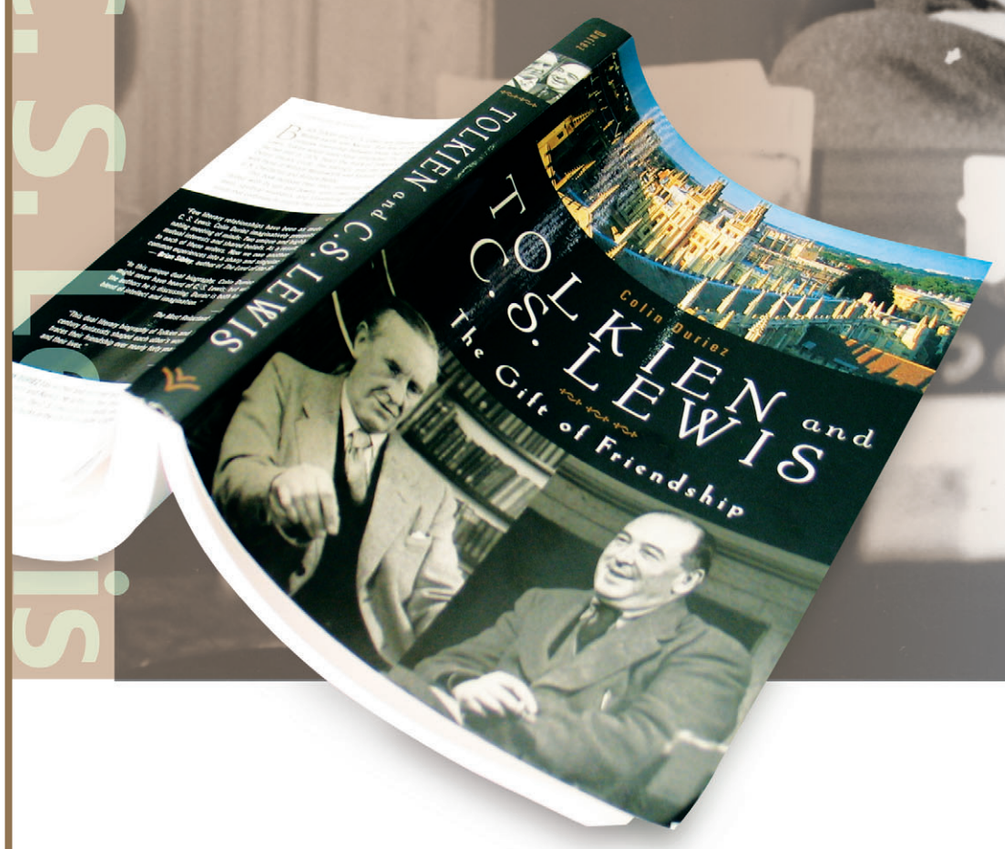
Tolkien and C.S. Lewis

《반지의 제왕》 작가 J. R. R. 톨킨과 《나니아 연대기》 작가 C. S. 루이스의 우정과 문학

《톨킨과 루이스》는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서로가 끼친 문학적 영향을 일기와 편지, 친구들의 회상과 그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준다.

"루이스와의 우정은 많은 것을 보상해 준다. 그는 끊임없는 즐거움과 위안의 원천일 뿐 아니라 정직하고 용감하고 지적인 학자요 시인이요 철학자다. 오랜 순례를 거쳐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와의 교제를 통해 나는 많은 유익을 얻었다."–J. R. R. 톨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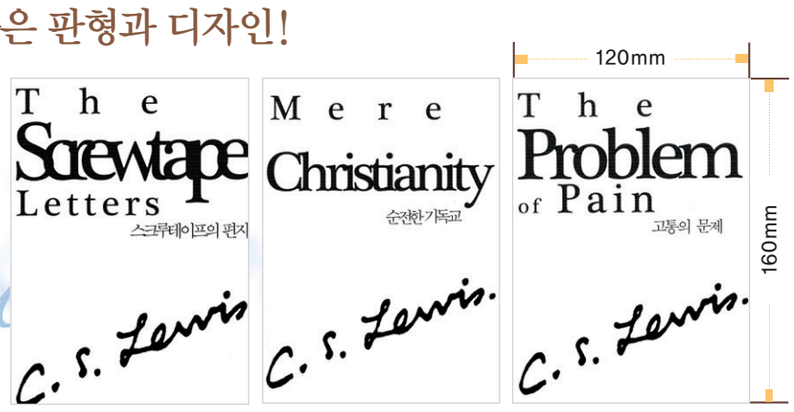
콜린 듀리에스 지음_홍종락 옮김_A5신변형_양장



'C. S. 루이스 베스트 컬렉션'을 만나는 기쁨!

▶9월말 출간예정

특별보급판으로 나오는 C. S. 루이스의 명작 3종!
청년대학부 · 선교단체 필독교재용으로 저가 보급!
가볍고 손에 쏙 잡히는 휴대성 높은 판형과 디자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4×6변형_특별보급판_228면

순전한 기독교
4×6변형_특별보급판_352면

고통의 문제
4×6변형_특별보급판_248면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VIII

원문에 충실한 번역, 유일한 정식 한국어판!

거짓 사랑에 오염된 현대인들에게
참사랑의 진정성으로 비수를 꽂는
C. S. 루이스의 순전한 사랑 변증법!

C. S. 루이스 지음_
이종태 옮김_믿음의 글들 226_A5신변형_양장_240면_9,800원

C. S. Lewis.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